

경기도의회

균형 있는 성장

농촌과 도시를 잇는 하루



의정홍보위원회

-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 김부용 위원(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 도연수 위원(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발간일

2026년 4월 10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6



10



58



시간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의 길

- 06 의정 브리핑
- 09 의원연구단체 이모저모
- 46 조례 카드



72



75

삶의 길

- 56 경기 지하철 나들이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 60 활체어로 떠나는 여행
어머니와 함께 떠난 생일 기념 꽃놀이
- 64 하루를 바꾼 조례
다산, 길을 묻다
- 68 교실에 닿은 조례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경기도의회회 두 가지 약속
- 70 의정 웹소설
저녁이 머무는 곳
- 74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억천만년' 살아가소서
- 76 건강 100년 노트 I
계단 앞에서 느끼는 관절의 신호
- 78 건강 100년 노트 II
매일 재는 혈압, 건강을 만드는 습관
- 80 천천히, 디지털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기
- 82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
길은 달라졌지만 목적지는 같더라
- 86 응답하라 경기
도시락과 교복이 있던 우리들의 학교
- 88 [웹툰] 의회툰
우리 아이 급식... 괜찮은 걸까?
- 90 경기 문화 한마당
- 94 독자 솜씨 마당
- 97 경기도일자리재단



의정서의 의정서



안성팜랜드

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책무를 제도로 남기고
제도를 삶의 변화로 이끄는 일,
그 과정의 무게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의정의 길은 도민을 향해 이어집니다.

기
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 축하



“보육 현장 여건 개선 뒷받침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3월 2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지난 임기 동안 연합회를 이끌며 보육 현장을 위해 힘써 주신 장경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아

이들을 위한 헌신은 경기도 보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의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 웃음 하나로 버텨오신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과 취임식, 신임 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일본 가나가와현의회와 협력 논의

32년 우호 기반 실질적 교류 확대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3월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단장 사카이 마나부)을 맞아 양 의회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가 지난 1994년 교류 협력 합의를 체결한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이날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은 접견에 앞서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의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공식 접견에서는 양 의회간 교류 성과 공유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품 교환 및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가나가와현의회 국제친선연맹 남중섭 의원(더민주, 용인3)은 “32년간 이어온 소중한 교류의 역사는 양 의회가 상생 발전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 자리가 지난 32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기관 연계 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

번 교육에는 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입법지원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법제교육을 이어가 입법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의회 사무처 입법지원담당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교육재정 관리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3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

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애형 의원(국힘, 수원10)은 “전국 교육청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 완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 착수



“매체 선정 기준, 광고 배분 기준 등 마련이 목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는 3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 과정에서 매체 선정과 광고 배

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분석하고, 의정 홍보 및 도민 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은 “의정 홍보비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해 매체 선정 기준 및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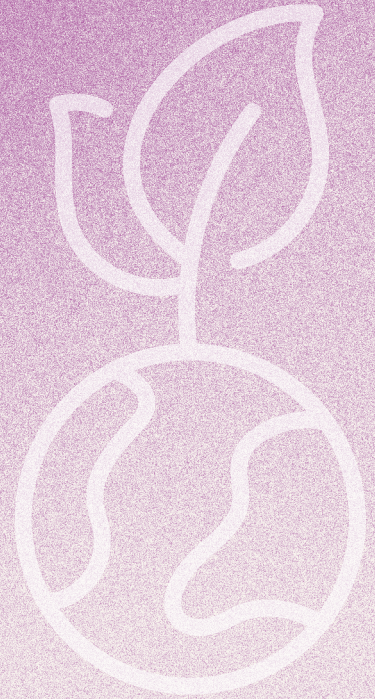
도민 중심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 주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김성남(국힘, 포천2),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은 3월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 착수보고회에는 김성남 의원,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이 참석해 도민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그간의 정책 협치 성과를 백서에 집대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민의 삶에서 출발해 변화의 해법을 찾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정책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질문과 데이터 그리고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쌓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 과정을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실천해 왔다.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연구용역과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 플랫폼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는 총 36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며 기후·저출생·교육·안전·복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 접근을 결합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조례와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데이터 기반 분석을 아우르는 정책 방식이 확산되며 정책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축적은 더 안전한 환경과 촘촘한 복지, 긍정적인 노동 여건 등 도민의 일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에 머물지 않고 질문을 해답으로, 해답을 제도로 연결해 왔다. 이 지면은 그 과정과 성과를 담은 기록으로, 정책이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포럼



2024 제2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2024. 8. 9.)

정책 실험을
공론으로,
기회소득 논의를
이끌다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포럼(회장 강태형)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소득정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연구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활동이나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포럼은 이런 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 재원 구조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보완과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정리 중이다.

주요 활동

- 2023. 11. 16. 제1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 2024. 8. 9. 제2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 2024. 10. 12. 제3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주요 성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론화하며 기회소득의 개념, 재원, 대상 등 실질적 쟁점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했다.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회소득정책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회소득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3차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을 주제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모았으며, 기회소득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성 의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5),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오석규 의원(더민주, 의정부4), 유중상 의원(더민주, 광명3), 이은미 의원(더민주, 안산8),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

건강한 노후생활 연구회



건강한 노후생활 연구회 최종보고회(2024. 12. 1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다



건강한 노후생활 연구회(회장 김호겸)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도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년기의 건강과 여가, 사회 참여가 중요한 삶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회는 도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이나 걷기, 여가 활동,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건강 정책을 모색한다. 특히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걷기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생활 속 건강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는다. 이런 연구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노후생활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17. '신중년을 위한 음악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12. '신중년을 위한 음악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7. 23.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 2025. 8. 18.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신중년을 위한 음악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신중년(50~64세) 세대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제공,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할 음악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로 걷기 길 이용 현황과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안전관리와 안내체계 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연구로 걷기와 관광, 지역 경제를 연계한 생활형 건강정책을 모색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구성 의원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 김영기 의원(국힘, 의왕1),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 박명숙 의원(국힘, 양평1),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 백현중 의원(국힘, 구리1), 서성란 의원(국힘, 의왕2),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 윤재영 의원(국힘, 용인10),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 조희선 의원(국힘, 비례)

경기도 노인주거복지 정책 연구회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3. 25.)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하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 정책 연구회(회장 이택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도민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년기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과 의료, 생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생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회는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개념을 중심으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고령 도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 2025. 1. 20.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3. 6.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 2025. 3. 25.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세대 간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테마 타운을 연구하고, 이를 일산동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삼재캠퍼스 등에 적용해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법률적 제도 개선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주택 모델을 마련해 도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돌봄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성 의원

김민호 의원(국힘, 양주2), 김성수 의원(국힘, 하남2),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안계일 의원(국힘, 성남7), 오준환 의원(국힘, 고양9),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7. 28.)

재난 현장의
영웅을 위한
회복 지원정책을
모색하다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회장 안계일)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수행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은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연구회는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치유와 회복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인력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 2024. 12. 11.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세미나 개최
- 2025. 4. 10.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7. 28.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8. 21.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주요 성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연구 과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성 의원

김규창 의원(국힘, 여주2), 안계일 의원(국힘, 성남7), 유경현 의원(더민주, 부천7), 윤성근 의원(국힘, 평택4),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 이영희 의원(국힘, 용인1),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 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최종보고회(2026. 1. 30.)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다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회장 김재훈)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8.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25. 9. 4.~ 5.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 개최
- 2025. 9. 19.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2026. 1. 23. '2026 고립·은둔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담회 개최
- 2026. 1. 30.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 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논의가 이어졌다. 정책토론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민·관 정책정담회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됐다. 이런 논의는 2025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일 경험 모델 연구와 민·관 협력 논의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차원의 고립·은둔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구성 의원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 김상곤 의원(국힘, 평택1),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김정영 의원(국힘, 의정부1),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 김철현 의원(국힘, 안양2),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7),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심홍순 의원(국힘, 고양11)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2025. 12. 18.)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회장 임광현)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미래세대정책은 교육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회는 부모 교육과 예방 중심 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과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2.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18.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10. 31.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11. 25.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
- 2025. 12. 18.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부터 난독·읽기부진 학생 지원까지 '예방-조기 개입-학습권 보장'의 단계적 체계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또 아동학대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관련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성 의원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 서성란 의원(국힘, 의왕2),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 임광현 의원(국힘, 가평), 허원 의원(국힘, 이천2)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2025. 11. 27.)

생태와 평화를
있는 접경지역
관광의 가능성을
찾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공유하천 임진강을 통한 남북 상생 생태관광 개발과 수자원 공동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DMZ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태 자산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자원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구회 활동이 시작됐다. 연구회는 생태 보존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모델을 찾고, 접경지역 발전과 도민의 문화·관광 경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DMZ 인근 주민의 삶터 보존과 함께 도민은 평화 관광 활성화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활동

- 2023. 9. 12.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24. 6. 24.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우수연구단체 수상
- 2024. 12. 13.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회
- 2025. 11. 27.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생태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DMZ를 공유 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런 논의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초석이 됐다.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정책의 비전과 사업 콘텐츠 개발로 경기도 내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둔 것이 핵심이다.

구성 의원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 김창식 의원(더민주, 남양주5),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 오준환 의원(국힘, 고양9), 윤재영 의원(국힘, 용인10),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 이재명 의원(더민주, 안양6)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4. 12. 19.)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다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회장 이서영)는 노후계획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특히 군공항 인접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고도제한규제가 도시 정비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회는 규제 완화를 단순한 개발정책이 아니라 도시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접근하며, 노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 방향을 찾고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9.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는 고도제한규제가 도시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보상부터 도시기능 복합화 방안까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확장했으며,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구성 의원

김규창 의원(국힘, 여주2),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 오준환 의원(국힘, 고양9),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임상오 의원(국힘, 동두천2)

경기도의회 ESG실천 포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2025. 9. 22)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정책을
고민하다



경기도의회 ESG실천 포럼(회장 박옥분)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 기반한 공공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ESG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정책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에도 이런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은 경기도 공공정책과 행정 전반에 ESG 관점을 적용할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주요 활동

- 2024. 10. 7. '경기도의회 ESG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 및 세미나
- 2024. 10. 24. 기업 현장 방문 실시
- 2025. 3. 5.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기업 ESG 확대 위한 연구용역 정담회
- 2025. 8. 25.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와 교류 정담회
- 2025. 8. 26.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9. 22.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

주요 성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ESG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행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뿐 아니라 기업의 ESG 우수 사례 확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구성 의원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 성복임 의원(더민주, 군포4),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장한별 의원(더민주, 수원4), 최준현 의원(더민주, 수원7)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툏아보기 연구회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2025. 6. 12.)

도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재정을
들어다보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톏아보기 연구회(회장 이흥근)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무제표와 재정 운영 구조를 분석해 공공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공공기관 재정은 도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구조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회의 주요 활동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재정 운영 구조를 살펴으며,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자료를 마련한다.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 2024. 9. 12. 연구회 발족식 및 ‘재무제표의 기초와 이해’ 세미나
- 2024. 10. 8. ‘의원 맞춤형 재무제표 교육’ 개최
- 2024. 11. 7.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세미나
- 2025. 2. 12.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세미나
- 2025. 6. 12.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

주요 성과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정 운영 구조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기관별 재정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재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활용될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도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성 의원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 박진영 의원(더민주, 화성8),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 이진형 의원(더민주, 화성7),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 이흥근 의원(더민주, 화성1),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5. 9. 1.)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
통합 정책을
모색하다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회장 최효숙)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한계를 분석하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보육 통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한다. 특히 유보통합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를 점검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또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9.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착수보고회
- 2025. 2. 28.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최종보고회
- 2025. 6. 4.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5. 9. 1.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과 통합기관 명칭 확정 및 제도화 등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구성 의원

김동영 의원(더민주, 남양주4),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 오세풍 의원(국힘, 김포2),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5),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이인규 의원(더민주, 동두천1),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연구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2025. 9. 5.)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 해법을
찾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연구회(회장 윤성근)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언어와 제도 이해의 차이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회 활동이 시작됐다. 연구회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주요 활동

- 2025. 6. 11.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9. 5.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안전정책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런 논의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성 의원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 박명숙 의원(국힘, 양평1),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 윤성근 의원(국힘, 평택4), 윤재영 의원(국힘, 용인10),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이용호 의원(국힘, 비례), 이한국 의원(국힘, 파주4), 허원 의원(국힘, 이천2), 홍원길 의원(국힘, 김포1)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2025. 7. 4.)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길을 찾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회장 김미숙)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국제 교류와 협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지방외교는 지역 간 협력과 국제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연구회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 전략과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 국제 교류 확대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연구는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

- 2024. 5. 31.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 참석
- 2025. 4. 10.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6. 4.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중간보고회
- 2025. 7. 4.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와 협력 전략을 분석하고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의원 외교의 제도화의 필요성,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상위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논의는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 의원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 오석규 의원(더민주, 의정부4), 이애형 의원(국힘, 수원10),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2025. 9. 18.)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다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회장 오창준)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경기도는 지역 간 산업·문화·생활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회는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반의 격차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등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또 문화 향유 기회와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2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경기도의 역할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2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경기도의 역할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6. 26.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9. 18.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지역 간 생활 인프라와 문화 향유 기회의 차이를 분석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으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도출했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구성 의원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 백현중 의원(국힘, 구리1), 서성란 의원(국힘, 의왕2),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 이해원 의원(국힘, 양평2),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 조희선 의원(국힘, 비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최종보고회(2025. 8. 27.)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경제 모델을
찾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는 지역공동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연구한다. 공동체자산은 지역 주민이 함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제 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회는 공동체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 교육과 지식 공유, 성공 사례 도입과 확산 등 실질적 정책 방안 도출에 주력한다. 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환경을 만드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6. 2024 의원 맞춤형 교육 '공동체자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교육' 실시
- 2025. 1. 13.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6. 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착수보고회
- 2025. 7.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중간보고회
- 2025. 8. 2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공동체자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 참여형 경제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분석했다. 특히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양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장기정주정책과 산업·사회 맞춤형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구성 의원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문승호 의원(더민주, 성남1),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5),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3)

경기도 융합교육 정책연구회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4. 12. 19.)

미래 교육
환경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다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회장 변재석)는 교육의 디지털화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특히 AI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학습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의 학습 방식과 신체 활동 간 균형을 고려하는 교육정책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과제도 분석한다. 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교육 환경 적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습 환경 속에서 미래 교육에 적응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7.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19.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해 AI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학습 환경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를 토대로 미래 교육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과 신체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는 학생들이 균형 잡힌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성 의원

고은정 의원(더민주, 고양10),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3),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 이인규 의원(더민주, 동두천1),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정동혁 의원(더민주, 고양3),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연구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12. 24.)

학생 맞춤형
통합복지정책을
연구하다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는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복지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섰다. 또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복지 모델과 교육복지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교육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9.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2. 12.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 2025. 12. 2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중점 연구했다. 경기도 내 6개 시범 교육지원청과 44개 선도학교에서 시행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복지 선도 모델 확립,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또 미래형 온라인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교원 역할 재정립, 공교육 내 온라인 학습의 위상 정립 등을 논의했다. 이는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성 의원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이인규 의원(더민주, 동두천1),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장한별 의원(더민주, 수원4),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4. 12. 19.)

해양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다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회장 이학수)는 경기도민의 항만과 해양 산업에 대한 정책 발전을 위해 도민 인식 제고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서해안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해양산업에 대한 활용과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회 활동이 시작됐다. 연구회의 성과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만과 해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해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21.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19.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경기도 항만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경기도민 해양 레저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지원 방향을 분석했다. 또 항만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안, 홍보 전략, 시설 확대 방안을 도출했다. 가족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도내 머리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해 해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성장 기회를 만드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성 의원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 김성수 의원(국힘, 하남2), 김정영 의원(국힘, 의정부1),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 이영희 의원(국힘, 용인1),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경기도정책예산연구회 출범식(2024. 11. 28.)

도민 삶을
위한
정책예산을 찾다



경기도정책예산연구회(회장 이기형)는 경기도 정책예산과 각 분야 사업을 분석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예산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목적이다. 정책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효과와 예산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사업 구조와 예산 운영 방향을 분석한다. 또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연구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예산을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1. 28. 경기도정책예산연구회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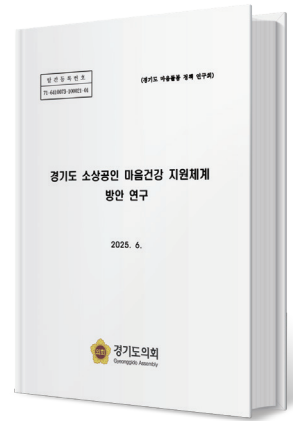
주요 성과

연구회 출범식에서 정책과 예산은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책예산연구회는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성 의원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 성기항 의원(더민주, 군포2), 오석규 의원(더민주, 의정부4),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 이은미 의원(더민주, 안산8),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찾다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는 소상공인의 정신 건강과 마음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경기침체와 경영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또 마음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모색한다. 연구를 통해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등의 제도와 연결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주요 활동

- 2024. 9. 30.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정담회 개최
- 2025. 4. 11.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정책용역 착수
- 2025. 6. 27.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소상공인 정신 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 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성 의원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이은미 의원(더민주, 안산8),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 박명숙 의원(국힘, 양평1),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연구회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25. 6. 17.)

지역 언론과 자치분권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다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연구회(회장 유호준)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 실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지역 현안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지역 언론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언론의 정책적 지원 방안과 지역 언론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또 지역 언론과 지방정부 간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5. 6. 17.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5. 9. 5.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완료

주요 성과

자치분권과 지역 언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지역 언론의 운영 환경과 정책 지원 필요성을 분석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언론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 강화와 디지털 전환, 공적 지원 제도 도입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방자치와 연계된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성 의원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 광미숙 의원(국힘, 고양6),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 김민호 의원(국힘, 양주2),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 이흥근 의원(더민주, 화성1),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회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5. 3. 26.)

데이터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다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회장 김근용)는 AI를 기반으로 행동 패턴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한다. 학교시설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따라 지역 생활 환경의 질이 달라진다. 연구회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시설 활용 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또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모델과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학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9.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회
- 2025. 2. 12.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25. 3. 26.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회는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시설 운영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이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성 의원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 윤성근 의원(국힘, 평택4),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이애형 의원(국힘, 수원10),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 최병선 의원(국힘, 의정부3), 홍원길 의원(국힘, 김포1)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4. 12. 24.)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정책 해법을 찾다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회장 김영기)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방안을 연구한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또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 이런 연구는 학생과 교직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학교안전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0. 10.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4. 12. 24.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문헌 분석, 설문 조사,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과 함께 시범 운영 중인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

구성 의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5), 김영기 의원(국힘, 의왕1),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 오세풍 의원(국힘, 김포2),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 이애형 의원(국힘, 수원10), 이용호 의원(국힘, 비례),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 최승용 의원(국힘, 비례), 허원 의원(국힘, 이천2)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최종보고회(2025. 3. 25.)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다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쓴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이어가며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연구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8.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2. 12.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중간보고회
- 2025. 2. 27. 어르신 복지 서비스 현장 방문 및 정담회
- 2025. 3. 25.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여가, 건강, 돌봄, 세대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복지공간으로 바꾸고 경로당 이용 연령 규정을 완화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복지관-경로당 연계 운영,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대학과의 공간 공유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강조했다.

구성 의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5),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 문승호 의원(더민주, 성남1),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 서현욱 의원(더민주, 평택3),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경기혁신포럼



동국대학교와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2025. 3. 18.)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다



경기혁신포럼(회장 고준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안 재진단과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혁신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재설계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더불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8. 9.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혁신포럼 등록 신청
- 2025. 3. 18. 동국대학교와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 지역산업 활성화 및 R&D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주요 성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혁신 연구를 위해 동국대학교와 정책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책 제안, 경기도 주요 현안 진단 및 분석, 정책 개발 활용, 정책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정책 전문가 양성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 연구 인프라 및 자원 상호 활용, 소프트파워 경쟁력 강화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성 의원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김철현 의원(국힘, 안양2), 심홍순 의원(국힘, 고양11),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7),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지역현안현장 연구회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2024. 12. 16.)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모색하다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회는 광역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대중교통, 지역 경제, 주거정책,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를 통해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물리적 행정구역을 넘어 더 큰 범위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연구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2. 16.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최
- 2025. 4. 18.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정담회
- 2025. 6. 10.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 2025. 7. 21.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광역교통망 부족과 접경지역 규제 등으로 인한 교통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시군 간 협력 기반의 준광역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담체계 개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광역교통 관련 법·조례 개선과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필요성을 도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연구는 경기북부 도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구성 의원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 오세풍 의원(국힘, 김포2),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 이한국 의원(국힘, 파주4),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 임광현 의원(국힘, 가평),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 최병선 의원(국힘, 의정부3)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3. 9. 19.)

접경지역의
가능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다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회장 윤충식)은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며 소외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포럼을 결성했다. 연구회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관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또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발전 모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활동

- 2023. 7. 4.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3. 9. 19.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재정부비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지역 맞춤형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문화 인프라와 드론 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도출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군 연계산업 기반 조성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촉진하고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로써 경기북부 도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구성 의원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 김정영 의원(국힘, 의정부1),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이재영 의원(국힘, 성남8), 임광현 의원(국힘, 가평), 임상오 의원(국힘, 동두천2)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2025. 6. 17.)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해법을 찾다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회장 광미숙)는 도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경제,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또 다양한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주요 활동

- 2025. 6. 17.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9. 11.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완료

주요 성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로 경기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분산된 제도와 데이터를 통합해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고양시에 이민청을 설치해 광역 통합 거버넌스 허브로 기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군별 특성에 맞춘 언어·비자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구성 의원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 광미숙 의원(국힘, 고양6),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 김민호 의원(국힘, 양주2), 김상곤 의원(국힘, 평택1),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 이성호 의원(국힘, 용인9),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경기교육발전 연구회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5. 8. 20.)

아이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교육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돌봄정책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연구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5. 6. 20.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5. 8. 4~8. 26. 늘봄학교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조사 및 관련 인식도 조사 실시
- 2025. 8. 13. 늘봄학교 학부모 공청회 개최
- 2025. 8. 20.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안전강화 정책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CCTV 연계 강화, 귀가 지원 서비스,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 표준화 등 실질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학교, 지자체, 학부모가 협력하는 교육 안전 모델을 제안하며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구성 의원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5), 이성호 의원(국힘, 용인9), 이영희 의원(국힘, 용인1),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

기후행동실천 연구회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7. 23.)

일상 속 기후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기후행동실천 연구회(회장 이경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제로, RE100, ESG 실천 방안을 연구한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를 넘어 도민의 생활과 안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연구회는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연구회의 활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4. 11. 27. 기후행동실천 연구회, 연구방향 및 과제 토론회
- 2025. 2. 12. 제1차 연구과제 및 과제 토론회
- 2025. 3. 5.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25. 7. 23.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9. 23.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주택 기후행동' 토론회 개최

주요 성과

연구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행동 모델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촉매적 투자와 행동 유도형 인센티브,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 또 기존 예산 재배치와 주민 참여 예산, 재활용 수익 등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런 연구는 도민이 일상에서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효과를 체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구성 의원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4),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박진영 의원(더민주, 화성8),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3)

경기도의회 직업인성 교육연구회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최종보고회(2025. 9. 19.)

청소년의
사회 진입 역량
키우는 교육정책을
모색하다



경기도의회 직업인성교육연구회는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청소년 직업 인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최근 산업 환경 변화와 함께 단순한 지식 교육을 넘어 협업,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등 인성 기반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회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청소년 직업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산업현장을 연계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직업인성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주요 활동

- 2025. 7. 23.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9. 19.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특히 직업 인성 기초소양 교육과 직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 운영체계 구축과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이런 연구는 청소년이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구성 의원

곽미숙 의원(국힘, 고양6),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4), 김희철 의원(더민주, 화성6),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관리와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12. 2.)

소방 역사를 기록하고 안전 문화를 미래로 잇다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핵심 공공서비스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는 소방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주요 활동을 정리해 정책적 가치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며, 소방 관련 유물과 기록을 보존·전시하는 문화유산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 더불어 소방의 역할과 의미를 도민과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 의식을 높여 공동체의 소중한 기록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 2025. 7. 24. 경기도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1차 정담회
- 2025. 8. 19.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5. 12. 2.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2025. 12. 19.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요 성과

연구에서는 소방 조직과 장비, 제도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소방 역사 기록을 전시·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과 사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유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구성 의원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 유경현 의원(더민주, 부천7),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 이성호 의원(국힘, 용인9), 이영희 의원(국힘, 용인1),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

경기도-대만 산업·문화· 스포츠 교류발전 연구회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 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25. 11. 5.)

국제 교류를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다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 연구회(회장 최병선)는 경기도와 대만 간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특히 팹리스 산업, 스포츠,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만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하며, 산업·문화·스포츠를 융합한 교류 모델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국제 교류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전략을 함께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경기도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

- 2025. 9. 17.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와 대만 교류 차담 통한 경기도 문화 스포츠 발전 모색
- 2025. 11. 5.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 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6. 2. 4.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 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

주요 성과

경기도와 대만 간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양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구조와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경기도와 대만(신베이시)을 중심으로 한 교류 가능성을 분석하고, 문화 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와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도출하며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경기도형 교류 모델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청년·산업·문화가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구성 의원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 김성수 의원(국힘, 하남2),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최병선 의원(국힘, 의정부3)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2025. 12. 15.)

첨단기술로
지역 격차 줄이고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다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회장 김동희)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드론·AI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재난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분석하고, 권역별 거점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교육·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함께 검토한다. 이 연구는 기술과 생활이 결합된 스마트시티 환경을 구축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5. 12. 15.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
- 2026. 7.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완료 예정

주요 성과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해 연구한다. 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검토한다. 또 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시민 중심의 도시 운영체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간 기술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플랫폼 구축 전략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구성 의원

국종범 의원(더민주, 성남4), 김규창 의원(국힘, 여주2),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 김동영 의원(더민주, 남양주4),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 이재영 의원(국힘, 성남8),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5. 9. 5.)

일하는
도민의 삶에서
해법을 찾다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는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연구회는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과 고용 환경, 조직문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인구·고용·복지정책을 연계한 경기도형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는 도민 삶의 기반을 안정화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활동

- 2025. 6. 17.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5. 9. 5.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출생 원인과 정책 한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낮은 임금, 고용불안, 직장 내 문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출산·육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 특히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확대, 권익 지원 기관 강화 등 실행 중심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성 의원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 김상곤 의원(국힘, 평택1),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심홍순 의원(국힘, 고양11),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7),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 이재영 의원(국힘, 성남8), 이재영 의원(국힘, 비례),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

건강도시 연구회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6. 2. 25.)

건강을 더한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도시 연구회(회장 한원찬)는 도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건강도시는 단순한 보건정책을 넘어 교통,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도시정책과 연계되는 통합 정책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초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건강도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한다. 더불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기존 정책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한다.

주요 활동

- 2025. 12. 24.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2026. 1. 22.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2026. 2. 25.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주요 성과

연구에서는 초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모든 정책 내 건강(HiAP)' 접근을 도입해 교통·환경·주거 등 도시 환경 전반에 건강을 반영하는 통합정책체계를 제안했다. 또 건강도시지원센터 신설과 조례안 마련 등 시군 협력 기반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도출했다. 이로써 도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체감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 의원

김철현 의원(국힘, 안양2),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이영호 의원(국힘, 비례),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 최승용 의원(국힘, 비례),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



제388회 임시회 조례 카드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정 및 전부개정된 조례 15건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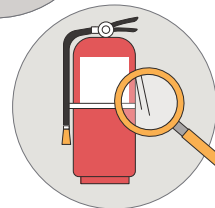
안전행정 위원회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장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2)
대표발의



경기도는 서로 다른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 간 연계 상황을 미리 분
석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 피해를 줄이고 대
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복합재난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 복합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복합재난 사항 검토 시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

안전행정 위원회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장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2)
대표발의



경기도에는 약 24만 대의 승강기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되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승강기 안전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 협력이 강화되어 사고 예방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승강기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 추진 근거와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
대표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이 확대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도민이 직접 지역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미디어 문화 참여가 넓어지고 지역사회 소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 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농정해양
위원회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

❖ 박명원 의원
(개혁신당, 화성2)
대표발의



경기도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갯벌 생태계 조사와 복원, 오염원 관리, 생태관광 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건강한 갯벌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과 어촌 경제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갯벌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등 도시사 추진 지원사업을 규정
- 지원사업 시행 관련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오창준 의원
(국민의힘, 광주3)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뿐 아니라 일반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 복귀와 지역 정착을 돕는 기반이 더욱 넓어집니다. 취업과 창업, 귀농·귀촌, 심리·재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제대군인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 조례의 목적을 제대군인 전반까지 확대 규정
-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해 규정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
대표발의



교육, 경찰, 보건, 사법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됩니다. 마약류중독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도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
대표발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을 관리하는 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전문성이 유지되고,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 규정
-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이병길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
대표발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경기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연계하면, 손상 위험을 줄이고 사고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 손상관리사업 지원 방안,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구성 및 운영 기준 규정

건설교통
위원회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 허원 의원
(국민의힘, 이천2)
대표발의



대형차량 우회전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행자,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와 시범사업, 교육·홍보가 함께 추진되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보급 확대 위해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장치 운영에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필요 조치 강구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 김철현 의원
(국민의힘, 안양2)
대표발의



경기도는 첨단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연결하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청년과 여성, 중소·중견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가능해 취업 및 경력개발 기회가 넓어지고,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 첨단산업 중소·중견 기업 지원 관련 사항 규정
- 첨단산업 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해 국가 지정, 등록기관, 인재 활용 사항 규정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상곤 의원
(국민의힘, 평택1)
대표발의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공무원의 문서 작성과 자료 분석 등 행정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가 보다 신뢰성 있게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윤충식 의원
(국민의힘, 포천1)
대표발의



고정형뿐 아니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변화한 환경에 맞는 관리 기준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개인영상정보 수집과 이용, 관리 책임, 교육·점검체계가 정비되면 사생활 침해와 정보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본 원칙 규정
- 적절한 설치·운영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명확히 규정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김근용 의원
(국민의힘, 평택6)
대표발의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기증 및 재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생깁니다. 학생과 지역 사회, 교육기관 등이 도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지식과 독서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의미를 더합니다. 또 도서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 책무 규정
- 개인·기관·단체 및 외국에 도서 기증, 기증자 예우와 기증·수증 제한 사항 등 규정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하용 의원
(국민의힘, 용인5)
대표발의



초등학생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배우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체계화되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정과 지역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규정
- 관련 사업, 평가,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표창 근거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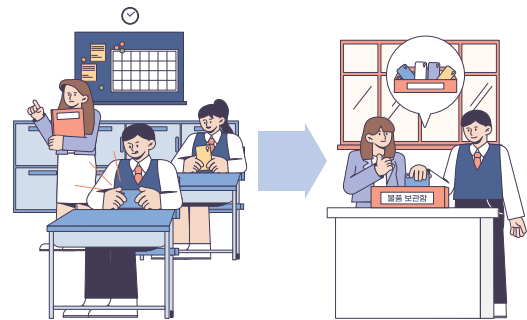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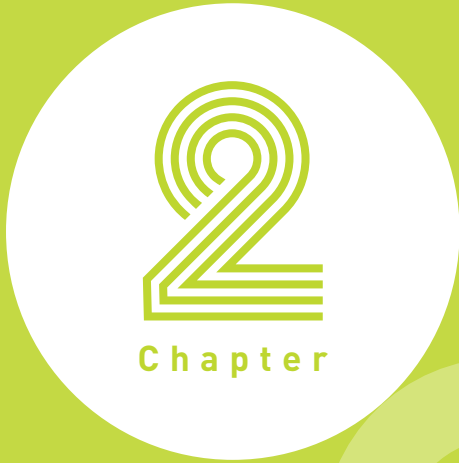
❖ 안광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1)
대표발의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이 보다 분명해지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집니다. 학교별 자율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소양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학교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관리 기본 사항 규정
-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협력체계 마련



사의 20





도민의 하루는
법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삶의 걸을 놓치지 않는 일,
그 걸을 지키겠습니다.

기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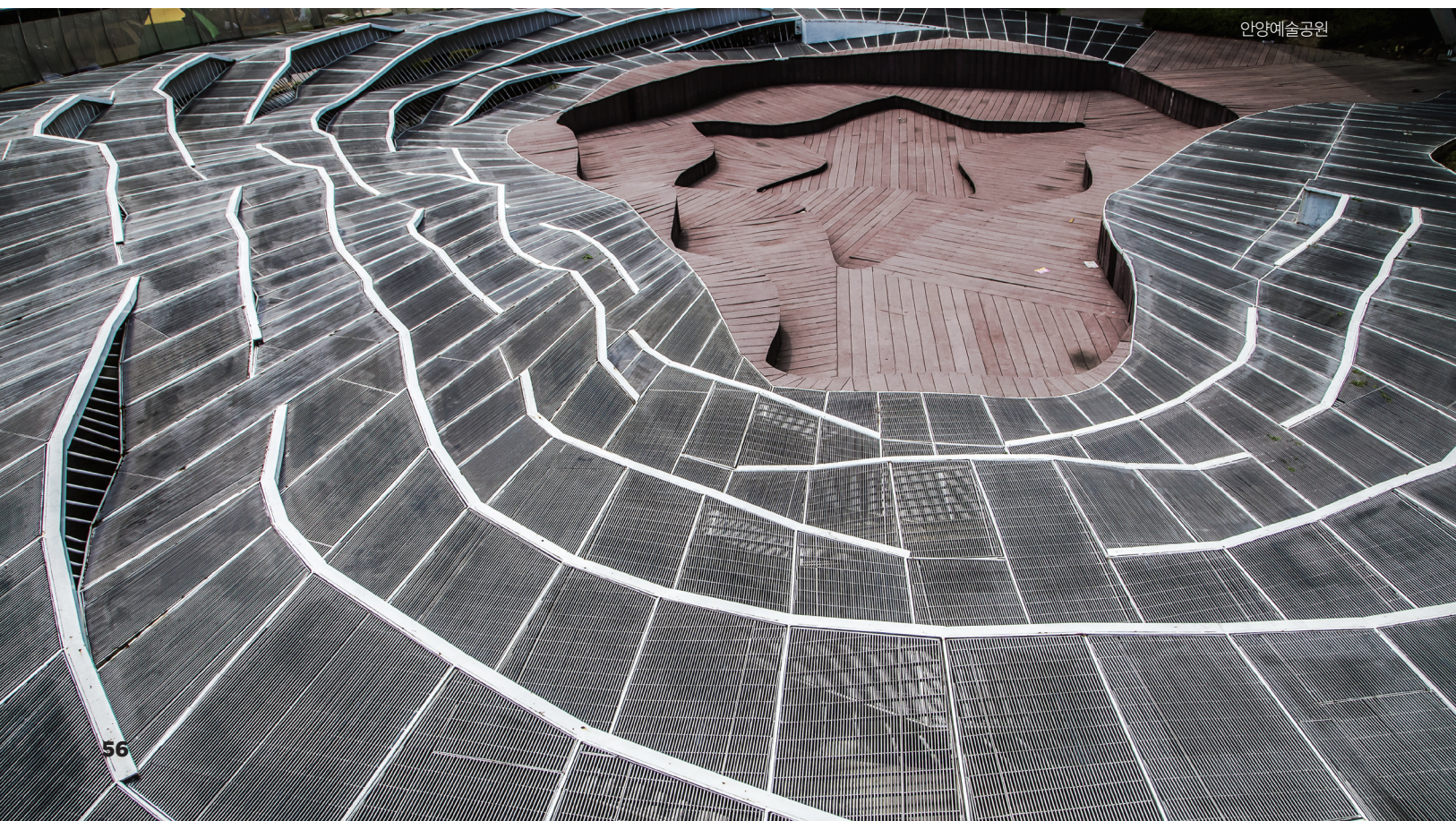


경기 지하철 나들이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자연과 건축, 미술이 + 어우러진 봄날



안양예술공원

여행 코스

- 자연·현대미술·건축·박물관을 함께 즐기는 봄철 예술 산책 코스
- 추천 계절
4~5월(벚꽃·신록 시기), 9~10월
- 이동 난이도
완만한 경사, 도보 이동 가능

관악역 2번 출구 →
안양예술공원 방향 직진
: 도보 25~30분

관악역

안양예술
공원 입구

계곡길 따라
작품 감상하며 이동
: 도보 20분

김중업
건축박물관

인근 산책로 따라 이동
: 도보 5~10분

안양
박물관

안양예술공원 중심 산책
: 도보 20~30분

현대미술
작품 구간

안양천 방향으로 이동
: 도보 20분

안양천
산책로

카페 거리 이동
: 도보 10분

안양예술
공원 카페
구간

휴식 후 관악역 복귀
: 도보 30분

관악역

봄이 가장 깊어지는 4월, 예술은 전시장 밖으로 나와 자연 속에 스며든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관악역에 내리면 숲과 계곡 그리고 현대미술이 이어지는 길이 시작된다. 여기에 건축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까지 더해지며 안양예술공원 일대는 열린 미술관으로 변모한다.

글 유현경 사진 지역N문화



① 도시를 벗어나는 첫걸음, 관악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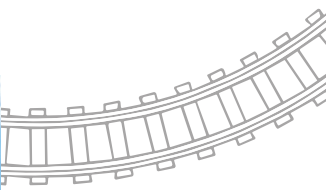
관악역은 도심과 자연을 잇는 출발점이다. 역을 나서면 번잡함은 빠르게 찾아들고, 대신 따뜻해진 공기와 봄 햇살이 길을 채운다. 4월의 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tip 2번 출구 이용 시 동선 편리

② 풍경 속에 스며든 예술,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계곡과 숲, 그리고 60점이 넘는 현대미술 작품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4월 안양예술공원은 연둣빛 신록과 벚꽃, 작품이 어우러져 더없이 아름답다. 안양유원지로 불리던 이곳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통해 안양예술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이곳에선 전시장과 달리 산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다리 위, 숲길 옆, 물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풍경 한 자락으로 감성을 자극한다.

tip 입장료 없음. 벚꽃 개화 시기에는 방문객 증가



◀ 김중업건축박물관



③ 선으로 공간을 그리다, 김중업건축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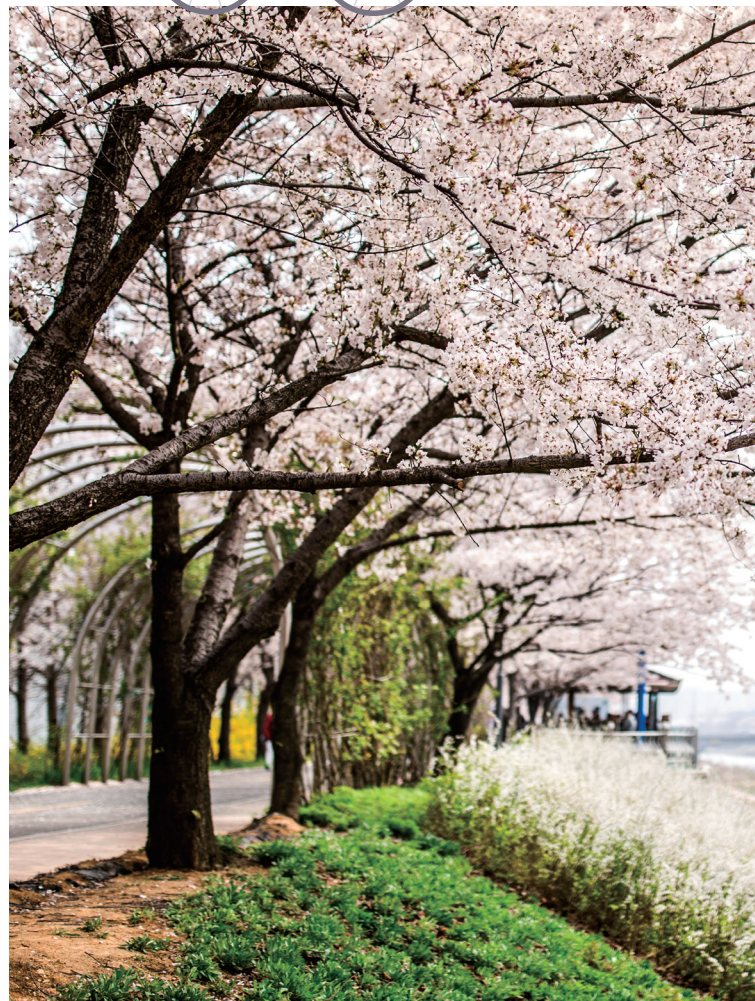
안양예술공원 안쪽에 자리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구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감은 '건축도 예술'임을 보여 준다. 야외에서 이어지던 작품 감상이 실내 공간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tip 관람료 없음(월요일 정기휴무),
실내 관람 시 정숙하기

④ 지역의 시간을 담은 공간, 안양박물관

안양박물관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공간이다. 야외 예술 작품과 건축을 지나 이곳에 들어서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전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안양의 변화와 그간 축적된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tip 관람료 없음(월요일 휴무), 화장실·휴식 공간 이용 가능,
아이 동반 관람도 부담 없음



⑤ 물과 빛 사이를 걷다, 계곡길 산책

안양박물관을 나서면 다시 계곡길이 이어진다. 이 구간에서는 걸음을 늦추는 것이 좋다. 사진을 남기거나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이 오히려 여행의 기억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길 곳곳에는 설치미술 작품이 놓여 있어 걷는 내내 전시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걷다가 마주하는 안양파빌리온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거점 공간으로, 야외 작품 감상에서 이어지는 실내 전시를 통해 예술 경험을 한층 깊게 만들어준다. 열린 구조의 건물은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잠시 머물러 쉬어가기도 좋다.

tip 곳곳에 벤치와 쉼터 배치,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권장, 안양파빌리온은 무료 관람 및 월요일 휴무

▼ 안양천



▲ 안양천

⑥ 봄의 일상과 마주하는 길, 안양천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면 안양천 산책로가 이어진다. 자연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다. 4월 안양천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여행은 이곳에서 한층 편안한 리듬으로 바뀐다.

tip 평탄한 길, 유아차·휠체어 이동 가능,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분, 봄철 꽃길 촬영 포인트

⑦ 잠시 머무는 시간의 밀도, 공원 입구 카페

산책은 안양예술공원 입구 카페 거리에서 휴식하며 마무리한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여유로운 쉬이 가능하다. 통창 너머로 초록빛이 번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온 길을 천천히 떠올려 보자.

tip 주말 혼잡, 평일 또는 오전 방문 추천, 야외 좌석 있는 카페 인기

⑧ 다시 일상으로, 가벼워진 발걸음

카페에서 여유를 만끽한 뒤 다시 관악역으로 향한다. 안양예술공원 일대는 자연, 미술, 건축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인 공간이다. 4월의 이 길은 특히 풍성하다. 꽃과 싱그러운 나무, 예술이 함께하는 산책은 일상 가까이에서 만나는 가장 충만한 여행이다.

tip 귀가 서비스 이용 가능, 관악역 방향 도보 포함 10~15분

어머니와 함께 떠난

생일 기념 * 꽃놀이

생일을 며칠 앞둔 20대 꽃청춘
장영훈 씨가 고민에 빠졌다.
그간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어머니 권순옥 씨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것. 생각 끝에 그는
생일날에 어머니와 동네 꽃놀이를 떠났다.

3월이 채 지나지 않은 탓에
만개한 꽃 무리는 볼 수 없었지만,
대신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할짝 피었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 한택식물원 |

기지개 켜 식물들이 전한 여유와 깨달음

장영훈 씨가 어머니 권순옥 씨와 함께 찾은 첫 번째 생일 기념 여행지는 한택식물원이었다. 산림청이 2024년부터 3년 연속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으로 선정한 식물원인 만큼 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도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고, 상쾌하게 불어오는 산바람에는 봄을 맞은 식물들이 뿜어내는 생기가 가득했다.

이제 막 작은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샛노란 개나리를 본 모자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올봄 들어 처음 마주하는 제대로 핀 꽃”이라며 어머니가 소녀처럼 좋아하자 장영훈 씨의 얼굴에 행복감이 스쳤다. “매년 보는 흔한 개나리지만,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 와서 보니 새삼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노란 봄의 전령을 마음껏 구경한 두 사람의 움직임이 한결 활기차게 변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미선나무의 새하얀 꽃에 감탄하고, 푸릇푸릇한 식물 사이에서 홀로 피어난 연노랑 수선화에 기뻐하며 숲길을 가로지르던 일행 앞에 온실 여러 동이 등장했다. 장영훈 씨는 그중에서도 호주 식물을 한데 모은 호주온실을 택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슬며시 웃으며 귀띔했다. “영훈이가 쾅거루, 코알라 같은 호주 동물을 유독 좋아해 저기로 갈 줄 알았어요.”

경사로를 따라 입구로 들어서자 호주 식물들이 자아낸 이색적 풍경이 펼쳐졌다. 줄기가 물병처럼 생겨 물병나무라고도 부르는 바오바브나무, 우리나라의 매화를 닮아 호주매화라는 이름이 붙은 진분홍빛 꽃나무, 언뜻 봐서는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강한



QR코드를 검색하면 장영훈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의 그래스트리 등을 살펴보는 장영훈 씨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해 여러 식물원에 가봤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에요.”

화려한 베고니아와 사람보다 큰 선인장이 인상적인 중남미온실을 둘러본 뒤 나오던 두 사람의 입에서 돌연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갈라진 아스팔트 틈을 비집고 나온 보라색 제비꽃이 이들을 감동시킨 것. 어여쁜 그 꽃을 내려다보던 장영훈 씨가 다짐하듯 말했다. “저렇게 작은 식물도 살기 위해 틈새로 꽃을 피웠네요. 저도 앞으로 저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꽃구경하러 왔는데, 값진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 한국민속촌 |

새록새록 피어난 옛 기억과 새로운 추억

식사를 마친 모자의 오후 행선지는 한국민속촌이었다. 전통의 멋을 뽐내는 정문에 다가서자 권순옥 씨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때 영훈이 업고



*** 여행지 Information**

◎ 한택식물원

자생식물 2,400여 종, 외래식물 7,300여 종이 서식하는 약 66만㎡ (20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 식물원이다. 각 식물의 서식 환경에 맞게 구성된 아름다운 정원과 그 안에서 자라는 다양한 품종을 살펴봄으로써 사계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 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2
- ② 031-333-3558

◎ 한국민속촌

우리 전통문화와 생활 풍속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관광지다. 조상들의 다채로운 삶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웰컴 투 조선’, ‘추억의 그때 그 놀이’ 등 전통을 재해석한 축제와 공연, 퍼레이드를 즐기는 재미도 크다.

- ①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 ② 031-288-0000





민속촌 안에 있는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놀이기구를 많이 타진 못했지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거웠죠. 10여 년 전 추석 때도 놀러 왔는데, 사람이 북적북적한 상황에서도 곳곳에 잔디밭에 돛자리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같은 용인이지만 한국민속촌은 한택식물원과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한택식물원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만큼 매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등이 한결 풍성하게 피어난 것이다. 만개한 매화나무에 다가서서 한국민속촌에서의 세 번째 기념사진을 남긴 어머니와 아들은 조선시대 양반처럼 느긋한 걸음걸이로, 하지만 부지런하게 옛 정취 가득한 전통 가옥 사이사이를 오가기 시작했다.

장영훈 씨는 현재 복지관에서 탁구선수로 활동 중이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활동을 빈틈없이 뒷받침한다. 그러다 보니 나들이 다닐 여유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는 두 사람. 이들에게 평일 오후의 고즈넉한 한국민속촌은 그야말로 힐링이었다. 사방에 자리한 보기 좋은 초가집, 코끝을 간질이는 은은한 꽃향기, 적당히 구름에 가려 따갑지 않은 햇살의 온기, 맑은 느낌이 좋으면서도 휠체어

가 다니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흙길. 이 모든 게 바쁜 일상에 쫓겨 지쳤던 모자의 마음을 편안함으로 이끌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며 강바람을 맞은 이들이 잠시 나무 평상에 앉아 쉬기로 했다. 장영훈 씨는 망고 아이스티를, 어머니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휴식의 동무로 삼았다. 차를 마시며 한 동안 말없이 주변을 감상하던 어머니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새는 불명, 물명 같은 걸 한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민속촌명’을 하게 되네요. 최근 들어 가장 편안한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복주머니 모양의 소망패에 정성스레 소원을 적은 뒤 소원 터널에 걸어놓은 모자가 맨 처음 지나친 상가 마을로 향했다. 조선시대 혼례를 모티브 삼은 ‘백년가약 퍼레이드’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바지런히 이동한 끝에 관람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은 장영훈 씨와 권순옥 씨는 30여 분간 펼쳐진 흥겨운 퍼레이드를 즐겁게 구경하며 한국민속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장영훈 씨의 ‘가장 완벽한 생일’은 이렇게 완성됐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옹이 현대의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찾았다. 벤처기업과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마주한 그는 두 조례가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을
묻고, 대화를 통해
하나씩 풀어간다.
기술과 제도가 어떻게
삶과 미래를 잇는지,
그 의미를 따라가 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챗GPT



다산, 길을 묻다

경기국방벤처센터에서 만난 벤처와 방위산업의 어제와 오늘

전시장에서의 만남

전시 안내인 ___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술 전시 행사가 열리는 경기국방벤처센터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벤처기업과 방위산업 기업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___ 저희는 재난 현장과 물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민간과 국방 모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약용 ___ 이 많은 기계와 장비가 백성의 삶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오.

스타트업 대표 ___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안전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는 큰 기회입니다.

주민(참관객) ___ 도포를 입으신 걸 보니 특별한 분 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약용 ___ 나는 먼 옛날에서 온 사람ियो. 처음 보는 것이 많아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어 이곳에 들렀소.

전시 안내인 ___ 여긴 벤처기업과 방산기업이 모여 협업할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벤처기업 조례를 묻다

정약용 ___ 이 기술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누가 돕는지 궁금하오.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__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 전석훈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덕분에 마련됐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___ 조례라니,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___ 조례는 지역에서 정하는 약속입니다. 도내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창업 생태계 연결, 글로벌 성장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합니다. 덕분에 도내 벤처들이 투자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주민 ___ 그러면 한 회사만 돕는 게 아니라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건가요?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___ 맞습니다. 한 기업의 어려움이 곧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정약용 ___ 길을 닦아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일과 비슷하군요.

방위산업 조례를 묻다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__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 이석균입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약용 ___ 방위산업도 이처럼 행사를 통해 지원 받는 것이요?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___ 네,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기술개발, 판로 개척,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의무 설치해 민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산기업 엔지니어 ___ 이런 지원 덕분에 중소·벤처 기업도 방산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판로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석훈 의원(더민주, 성남3) ___ 벤처기업을 돕는 조례와 방위산업을 돕는 조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모두 기술과 사람을 키워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정약용 ___ 나라를 지키는 준비와 백성의 살림을 일으키는 일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말로 군요.

이해와 정리

창업 준비 중인 청년 ___ 정약용 선생님,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정약용 ___ 우리 시절에는 농사와 수공업이 삶의 기반이었소. 제도와 기술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지금처럼 기술과 산업을 이어주는 체계는 없었다오. 여기에 와보니 보이지 않는 길이 곳곳에 나 있어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느낍니다.

스타트업 대표 ___ 벤처 조례 덕분에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투자와 멘토링을 받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방산기업 엔지니어 ___ 방위산업 조례로 중소기업도 방산 분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도는, 보이는 변화를 만든다.

기술을 키우는 일과 나라를 지키는 준비는 결국 하나의 길 위에 있다.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 ___ 조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그 기술이 다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정약용 ___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오. 과거든 현재든 길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소.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경기도의회 두 가지 약속

아이들의 하루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먹는 한 끼, 학교로 향하는 길 위의 순간들.
경기도의회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살피며 아이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왔다.

글 유현경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한 끼 지키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영유아에게는 성장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상이자, 하루의 리듬을 형성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급식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0~2세 영아를 위한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가 2024년 9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급식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외되거나 불안정했던 영아 급식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기반이 마련됐다. 어린이집은 더욱 안정적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 역시 아이의 식사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영희 의원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든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단속 중심의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학교 안으로 차량을 들여 승하차를 분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도로 여건과 공간 제약으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가 2025년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를 통해 학교 안팎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조사, 학교 내 회차로 및 안전시설 설치 근거,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차량과 학생의 이동 동선을 분리할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통학 시간에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 외부 여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통학 안전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내부에 안전한 승하차·회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췄다”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김일중 의원
(국민의힘, 이천1)

경기도의회는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와 김일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한 끼와 한 걸음을 지키며,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머무는 곳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도민 대표 기관인 경기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1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4월 마지막 주 목요일, 퇴근한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체육관 쪽으로 향했다. 몇 달 동안 어둠에 잠겨 있던 곳이 다시 환해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자 창문 사이로 흰빛이 쏟아졌다. 평소엔 어둠던 건물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체육관 앞에 선 민준은 잠시 문을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어른거렸고 농구공 튀는 소리와 운동화 마찰음, 아이들의 환호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익숙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문을 밀자 그 동안 닫혀 있던 공간이 쉽게 열렸다.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 재개 안내. 4월 24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문 안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체육관 특유의 냄새와 함께 익숙한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벤치에는 게이트볼 채를 든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한 쪽에서는 직장인들이 배드민턴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코트 중앙에는 현우

와 아이들이 이미 드리블을 하고 있었다.

“형!”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로 걸어 들어갔다. 공을 받아 바닥에 튀기자 그 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어떻게 다시 열린 거지?”

스쳐 지나간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온 저녁이 더 중요했다.

2화 불이 꺼진 자리

불빛이 자연스럽게 켜진 지금과 달리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겨울 끝자락, 체육관은 갑작스레 문이 닫혔다. 저녁 여덟 시, 아이들이 농구 연습을 위해 모여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는 캄캄했고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시설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임시 휴관 안내. 운영 재개 일정은 미정입니다.”

“형..., 오늘 농구 못 해요?”

현우의 질문에 민준은 답하지 못했다. 문손잡이를 당겨봐

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경비원은 “나도 오늘 알았다”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한동안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누군가 공을 한 번 튀겼고 그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철거한다더라”, “민간 헬스장으로 바뀐다더라”, “귀신이 나온다더라”. 아이들은 겁을 먹었고 어른들은 분노했다. 소문은 불안을 키웠다.

“귀신이면 차라리 낫지.”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구청에 물어보니 도에서 내려오는 운영비가 끊겼대.”

민준은 그제야 이해했다. 체육관의 불은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전기 요금과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맘카페에는 글이 쏟아졌다. “아이들은 어디서 운동하나요?”,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요”. 불 하나가 꺼지자 그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의견도 같았다.

“세금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나요?”

“생활체육은 공공서비스입니다.”

마침내 누군가 글을 남겼다.

“도의원실에 민원 넣어보신 분 있나요? 우리 힘만으로는



● ●
“형..., 오늘
농구 못 해요?”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논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예산’과 ‘정책’이라는 말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3화 저녁을 지키는 일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그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다. 반원형 테이블에는 의원들이, 맞은편에는 경기도 체육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안건은 ‘생활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실태’. 자료 첫 장에는 도내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 사례가 정리돼 있었고 민준이 다니던 체육관도 포함돼 있었다.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약 480명입니다. 다만 수익성은...”

체육국장의 설명을 박지안 의원이 끊었다.

“480명입니다. 아이들, 어르신, 직장인들이 매일 찾는 공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저녁을 어디서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의견은 갈렸다.

“적자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유료화나 민간 협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체육국은 재정 부담을, 의원들은 조례에 근거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방청석 뒤편에는 민준과 주민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회의를 지켜보며 ‘예산’과 ‘수익성’이라는 말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박지안 의원이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전환은 보류하고, 일부 시간대 유료화와 도·시군 분담, 조례에 따른 별도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2주 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번 추경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체육관 하나가 문을 닫으면 동네 저녁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경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표결이 진행됐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묵직한 선언과 함께 체육관에 다시 불을 켤 준비가 시작됐다.

4화 다시 켜진 불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도 주민들은 곧바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예산이 편성되도 실제 집행과 시설 점검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몇 주 뒤 체육관 창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점점 선명해졌다. 전구를 교체하고 설비를 점검하고 코트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입구에는 ‘경기도의회,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 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재개장 날 민준은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평소 들리던 소리가 돌아왔다. 아이들

은 다시 공을 튀겼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채를 들고 인사를 나눴으며, 직장인들은 라켓을 풀며 웃었다. 멈췄던 저녁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형, 오늘 3 대 3 해요!”

현우의 목소리와 함께 공이 바닥을 울렸다. 민준은 코트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뛰었다. 환호가 터지고 체육관은 금세 활기로 채워졌다.

잠시 숨을 고르며 민준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환하게 켜진 조명이 코트를 비추고 있었다. 어둠에 잠겼던 밤,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기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불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선택이 모여 만든 불빛이었다. 민준은 공을 받으며 생각했다. ‘다음에도 이 불을 지킬 수 있을까.’

체육관에는 다시 웃음소리와 공 튀는 소리가 가득했다. 긴 어둠 끝에 돌아온 불빛은 오늘도 동네의 저녁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 기억 속에 ‘억천만년’ 살아가소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덕 할머니

‘창부타령’ 한 소절을 구성지게 뽑고, 텃밭을
고르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던 할머니가 있었다.
나눔의 집 식구 모두에게 정을 쏟았고, 힘든 일엔
언제나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열일곱 살에 속아
끌려간 이국땅에서 겪은 참혹한 시간을 할머니는
붓과 물감으로 세상에 고발했다. ‘끌려감’, ‘못다 핀
꽃’ 등 화폭에 담긴 기억은 말로 다 깨낼 수 없는
아픔이자 분노였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말 한마디가 짓밟은 봄

1921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난 김순덕 할머니는
1937년 열일곱 살에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집
을 나섰다. 길은 중국 상하이로 이어졌고, 소녀는 3년간
‘위안부’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야 했다. 1940년
일본군 장교의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그동안의 기억은
끝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십 년 묻어둔 이야기를
꺼낸 건 1991년 TV 속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다. 이후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했고, 1992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다.

숨겨 온 세월, 눈물로 꺼낸 말

아들 양한석 씨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처음 입 밖으로
꺼낸 날을 잊지 못한다. “그때 꺼내기 힘드신 말씀을 하
셨어요. 큰아들인 저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드릴 위위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세상에 알려지는 걸



‘끌려감’과 ‘못다 핀 꽃’은
공포와 슬픔, 원망을
담은 작품이다.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일 이었는지 알았기에 다른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뒤늦 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김순덕 할머니 는 오랜 세월 그 상처를 홀로 안고 살아오셨다.

제2의 고향이 된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여러 곳을 거쳐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자리 잡았다.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해 강덕경·이용녀·박옥운 할머니까지 함께 내려왔다. 초창기엔 먹을 것조차 부족 해 직접 밥을 지어 나를 만큼 어려웠다. 그렇게 시작된 나눔의 집은 할머니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인권운 동에도 앞장섰고, 늘 부지런해 사령관이라 불릴 만큼 술 선수범했다. 농사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수요집회에



도 빠지지 않았다. “억천만년 살고 싶다”라는 말에는 다 풀지 못한 한과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붓을 잡은 손끝에서 터져 나온 말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나눔의 집에서였다. 미술 선생의 도움으로 붓을 잡았고, 말로 꺼내지 못했 던 한을 화폭에 쏟아냈다. ‘끌려감’과 ‘못다 핀 꽃’은 공 포와 슬픔, 원망을 담은 작품이다. 양한석 씨는 어머니 가 돌아가신 뒤에야 이경신 씨의 책 <못다 핀 꽃>을 통 해 그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한다. 뒤늦게 작품의 무게를 실감했고, 그림은 교황청과 여러 박물관에도 전해져 역 사적 증언으로 남았다.

나눔의 집에 잠드신 후에

할머니들은 “우리가 죽으면 여기 묻히자”라고 뜻을 모 았다. 다섯 분 중 네 분이 나눔의 집에 잠들었고, 김순 덕 할머니도 그 곁에 있다. 양한석 씨는 할머니가 인권 운동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교육이 이어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의 기록이 다음 세대에 전해졌으면 합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떠났지만 작품은 남아 있다. 우리가 눈을 떼지 않는 한 그림 속 소녀가 계속 묻는다. 기억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우리는 답할 것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억천만년’ 시간이 지나도록.



계단 앞에서 느끼는 관절의 신호

무릎이 아프면 계단 앞에서 멈춰 서게 된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허리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는다. 관절은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에 몸 상태를 조용히 알려 준다.

글 유현경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관절 건강은 특별한 검사보다 일상 속 움직임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과 허리 상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관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반복되면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이 점점 불편해진다. 통증을 피하려 움직임을 줄이다 보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져 증상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심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 체력이 약해지고 균형감각까지 둔해질 수 있다. 관절 건강이 단순한 통증 문제를 넘어 일상의 활동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이유다.

관절 건강의 시작은 '꾸준한 움직임'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두세 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에 전달된다. 이때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무릎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허리도 마찬가지다.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관절은 많이 쓸수록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관절은 적절히 움직일 때 주

변 근육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유지된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져 통증이 더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생활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평지 걷기는 관절 주변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해 관절 안정성을 높여 준다. 관절 건강은 갑작스러운 운동보다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움직임에서 출발한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관절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평지 걷기 하루 20~30분 천천히 걷는 것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꼽힌다. 보폭을 크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걷기를 권한다.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편 뒤 5초 정도 유지한다. 좌우 각각 10회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 스트레칭 양손을 허리에 대고 상체를 천천히 뒤로 젖혔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 허리 관절 주변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갑작스러운 달리기나 점프처럼 관절에 충격이 많이 전해지는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을 지킨다

관절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생활 속 관리가 더 중요하다.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틈틈이 몸을 움직여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신발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준다.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장시간 착



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쿠션감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든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통증이 생긴 뒤 관리하기보다 미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 작은 생활 습관 개선이 무릎과 허리를 오래 지키는 첫걸음이다.

계단 이용 시 관절 지키는 방법

계단은 관절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오르면 무릎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간단한 요령을 기억하면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딛기
- ② 난간 활용하기
- ③ 발바닥 전체로 딛기
- ④ 내려갈 때는 더 천천히 걷기
- ⑤ 통증이 느껴지면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매일 재는 혈압 건강을 만드는 습관

봄이 깊어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이어진다. 계절 변화는 겉으로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몸속 혈관은 그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반응한다. 이런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 상태를 습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혈압이다.

글 유현경

혈압이 중요한 이유

혈압은 '보이지 않는 신호'라고 부른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르며 만들어지는 압력이다. 이 수치가 적절히 유지되면 우리 몸속 장기가 안정적으로 기능하지만,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생긴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면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을 정상으로 본다. 수축기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80mmHg 이상부터는 고혈압으로 분류하며, 특히 140/90 mmHg 이상이 반복되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반대로 혈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어지럼증, 무기력



감,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 중 넘어지거나 실신할 위험도 있다. 수축기 90mmHg 이하이거나 평소보다 크게 낮은 수치가 지속된다면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한다.

혈압은 높을 때뿐 아니라 낮을 때도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평소 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재야 하는 이유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 혈압을 재보면,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수치에 당황한다. 그러나 사실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식사 후, 활동량이나 긴장 상태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한번 측정으로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비슷한 조건에서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처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면 혈압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면 어느새 몸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이 된다. 식탁에 혈압계를 두고 아침 식사 전에 재는 것이 혈압을 잊지 않고 체크하는 방법이다.

혈압을 재기 시작하면 수치에 민감해지기 쉽다. 하지만 한 번 잦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의 변화다. 비슷한 시간에 측정한 기록을 모아보면 혈압이 언제 오르고 언제 안정되는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지, 스트레스를 받은 날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변화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볼 수도 있다. 혈압 관리는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다.

혈압을 지키는 생활 습관

혈압 관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습관이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

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꾸준한 움직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리한 운동보다 평지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부담이 적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 역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은 삼가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혈압 관리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혈압 정확히 재는 방법

혈압은 재는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기본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1) 측정 전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있기
- 2)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두기
- 3)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 올려두기
- 4) 측정 중에 말하지 않기
- 5)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기
- 6) 식사, 운동, 커피 음용 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기

이제는 화면으로 주문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기

갑자기 햄버거가 생각날 때 매장에 들어선다. 그런데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직원이 있는데도 화면이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누구나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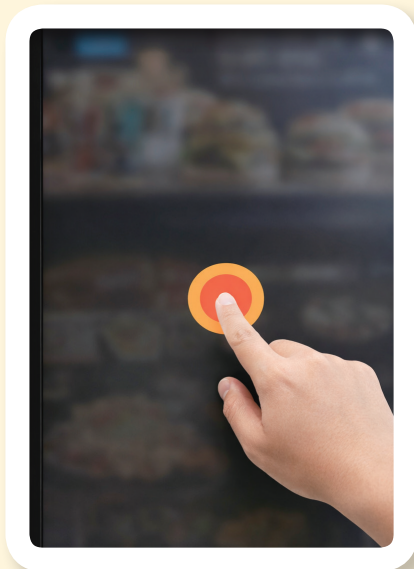
클 유현경

직원 대신 화면으로 주문하는 카페

예전에는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원하는 햄버거를 주문했다. 하지만 요즘은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서비스 단말기를 말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를 주문하는 데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키오스크는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르게 주문하고,

메뉴를 천천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같은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햄버거를 8개나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린다. 처음에는 혹시 그런 실수를 할까 두려움에 망설일 수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한 번만 익혀 두면 다음부터는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근차근 따라 해보기(햄버거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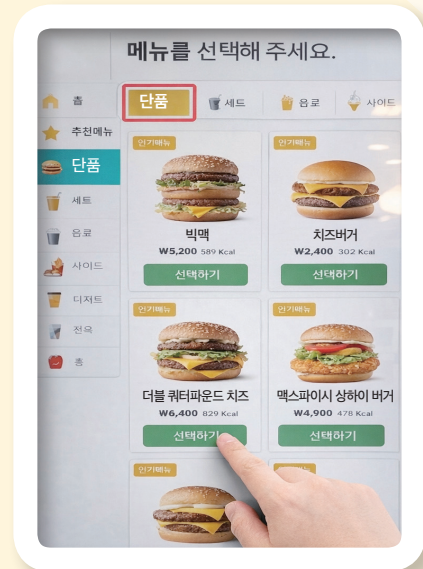
1 키오스크 화면 터치하기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손으로 가볍게 한 번 누르기)한다.



2 식사할 장소 선택하기

키오스크 화면에 나오는 '매장에서 식사' 또는 '테이크아웃(가져가기)' 항목을 터치한다.



3 메뉴 선택하기

'단품'이나 '세트' 등 분류 메뉴 항목을 터치한 후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4 옵션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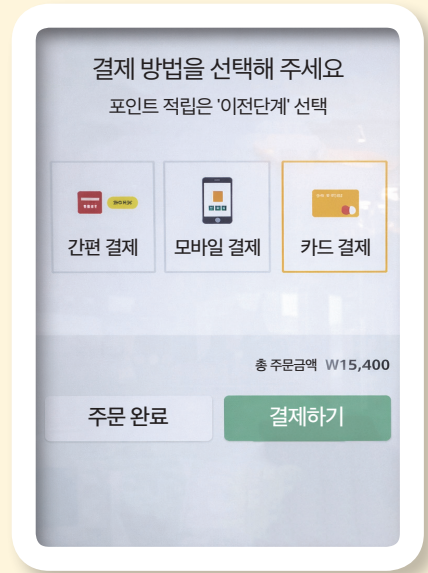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선택한다.



5 '주문 완료'나 '장바구니 담기'

항목을 터치하기

모든 선택이 끝나면 주문 내용을 확인한 뒤 '장바구니 담기'를 터치한다.



6 '카드 결제' 선택한 뒤 결제하기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결제하기'를 터치한다.



7 결제하기

카드 넣는 곳에 카드를 꽂거나 터치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번호가 적힌 종이와 영수증이 나온다.



8 음식 받기

주문 번호 호출 모니터에 내 영수증에 적힌 번호가 나오면 카운터에 주문증을 제출하고 음식을 받는다.

키오스크는 빨리 터치할 필요가 없다. 화면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읽고 터치해도 충분하다. 혹시 실수해 '뒤로 가기' 항목을 터치하더라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키오스크 이용 시 많이 하는 실수 TOP 5

- 1) 메뉴만 선택하고 '담기' 항목을 터치하지 않는 경우
메뉴를 선택했어도 '담기' 항목을 터치해야 주문이 완료된다.
- 2) 결제 단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
장바구니에 메뉴를 담았다고 주문이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결제하기' 항목까지 터치해야 주문이 완료된다.
- 3) 카드 꽂는 위치를 몰라 헤매는 경우
카드 꽂는 곳과 터치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카드 투입구' 또는 '터치 표시'를 확인하고 결제한다.
- 4) 주문 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결제 후 화면이나 영수증에 표시되는 번호를 놓치면 주문한 메뉴를 찾기 어렵다. 번호를 확인하고 화면을 한 번 더 본다.

길은 달라졌지만 목적지는 같더라

걷던 시대와 타는 시대,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람은 여전히 길을 따라 하루를 이어간다. 속도는 변했지만, 길이 삶을 잇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글 유현경



집 밖을 나서며 시작되는 하루

오늘도 우리는 집을 나서 '길'을 간다. 길의 마지막인 목적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은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노선, 이동할 경로나 길 위에서 보내게 될 시간이다. 이동은 하루의 시작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자,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오늘 우리는 이동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탈지'를 생각한다. 버스나 지하철은 일상이 되었고, 이동 방법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의 하루도 '길'에서 시작됐다. 다만 그 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 걷고 또 걷는 하루였다. 그 속에서 길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흐름이었다.

걷고 걸어야 이어지던 길

조선시대에 길을 따라가는 기본 이동 수단은 걷기였다. <경국대전> '병전(兵典)'에는 "역로에는 삼십 리마다 한 역을 둔다(驛路三十里置一驛)"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역은 오늘날과 달리 국가 업무를 위한 이동 거점이었다. 그 역과 역의 거리가 약 30리, 오늘날로 10km가 넘는 거리다. 이 간격만 봐도 당시 이동이 얼마나 긴 거리를 걷는 일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한번 길을 나서면 짧지 않은 시간을 온전히 이동하는 데 써야 했다. 길은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지만, 그 길을 가는 방식은 대부분 두 발에 의존했다.

이런 모습은 그림에서도 확인된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는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선 선비와 그 곁을 걷는 사람

“조선시대에는
길을 오가는 일은 대부분
두 발에 의지해 이루어졌다.”



들이 함께 등장한다. 누군가는 타고, 누군가는 걷는다. 이동 방식은 달랐지만 같은 길 위에서 하루가 이어졌다.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그 길을 건너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다.

몸을 움직여 삶 속으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몸으로 거리를 감당하는 일이었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곧 하루의 일부였고, 삶의 밀도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수령은 몸소 백성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길을 나서야 한다”라고 적었다. 길을 나선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풍속화에서도 길은 일상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에는 짐을 지고 길을 걷는 사람,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이의 모습이 반복된다. 그들은 어디론

가 가고 있고, 또 돌아오고 있었다. 길은 출발과 도착을 이어주는 공간이었고, 하루의 흐름을 완성하는 통로였다.

때로 그 길은 장터로 이어졌다. 먼 길을 걸어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길은 이동을 넘어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길 위를 오가며 하루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길을 체득하던 몸, 지도를 따라가다

옛사람들은 길을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기억해야 했다. 어디서 길이 갈라지고, 어느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나오는지, 경험을 통해 길에 관한 정보를 축적해 갔다. 정보와 경험이 쌓이니 길의 흐름을 기록한 기록물도 다양해졌다.

<동국여지승람> 같은 조선 전기 지리서는 각 지역의 보고와 기록을 바탕으로 길과 거리를 정리했다. 목적은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직접 답사한 것이 아니라 보고와 문헌을 바탕으로 한 ‘머리로 그린 지도’에 가까웠기에 거리나 비율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길과 공간을 그린 지도도 만들었다. ‘대동여지도’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에는 산줄기와 물길, 주요 도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그때까지의 지도와 달리 실제 이동이 가능한 길을 표시했고, 거리 감각이

“과거의 길은 느렸지만,
그 느낌 속에서 사람들은
주변을 보고 자연을 느끼며
타인과 마주했다.”



현실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표현했다. 길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지도였다.

오늘날 우리는 손안의 지도를 따라 움직인다. 스마트폰 화면 속 길 안내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 주고, 도착 예상 시간까지 계산해 준다. 길은 더 이상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는 정보가 되었다. 과거에는 길을 기억하며 이동했다면, 지금은 지도를 보며 이동한다. 길을 읽던 눈은, 이제 지도를 보는 눈으로 바뀌었다.

길 위에 시대의 풍속이 있다

옛사람들에게는 길을 걷는 일 자체가 하루의 활동이었고, 이동은 곧 노동의 일부였다. 계절에 따라 길 상태가 달라지고, 이동 방식도 변했다. 봄에는 얼었던 길이 풀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려 질척였으며, 겨울에는 얼어붙은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길의 모든 것을 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이동 방식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관리의 행차를 그린 '반차도'에는 가마와 말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 위에서 누군가는 탈것에 올라 이동했다. 걷는 것과 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서를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오늘날 이동은 점점 '앉아서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하철과 자동차는 이동의 부담을 줄였지만, 동시에 몸의 움직임도 줄였다. 걷던 시대에는 이동이 곧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이동과 운동이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

방식은 달라져도, 목적지는 같다

속도와 그에 따른 태도도 확연히 다르다. 과거의 길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서 사람들은 주변을 보고, 자연을 느끼고, 타인과 마주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할까. 반면 오늘의 길은 빠



르다. 같은 거리를 훨씬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길 위의 경험은 단순해졌다. 창밖의 풍경은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각자의 화면을 바라본다.

이렇게 달라진 것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도 있다. 옛사람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 들로 향하고, 관아로 가고, 때로는 장터를 지나 다시 집으로 갔다. 오늘날 우리는 집을 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다시 집으로 온다. 걷는 길 이든, 타는 길이든 결국 향하는 곳은 같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자리, 사람과 일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흙길은 아스팔트로 바뀌었고, 두 발로 걷던 길은 바퀴 위로 옮겨졌다. 그리고 길을 몸으로 익히던 시대에서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시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길이 우리의 하루를 이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도시락과 교복이 있던 우리들의 학교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지식을 탐구하는 교실에서의 열정과 쉬는 시간을 만끽하며 오가는 학생들로 떠들썩한 복도와 운동장.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는 지금과 다른 풍경과 사건이 있었다.

글 유현경
사진 공유마당, 국가기록원



아침 조회와 운동회가 펼쳐지던 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옛 추억이 떠오른다. 교복을 입고 교문을 지나던 아침,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던 가방, 교실 뒤편의 학급문고, 그리고 졸업 앨범에 남아 있는 그 시절 얼굴들. 학교는 공부만 하던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세계였다.

조회는 학교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이었다. 운동장에 줄 맞춰 서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던 시간. 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학교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지금은 방송 조회나 교실 조회로 바뀐 학교가 많지만, 교문을 지나 하루가 시작된다는 감각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회가 열리던 운동장은 운동회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면 활기가 넘쳤다.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던 운동회 준비가 시작되면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응원 연습을 하고, 달리기와 단체 경기 연습에 운동장은 늘 먼지가 일었다. 운동회 당일이면 학교는 평소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운동장 한쪽에는 학부모들이 돛자리를 펴고 앉았고,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뛰어다녔다. 마지막 계주가 시작되면 학교는 큰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바통을 움켜쥐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청군과 백군의 응원 소리가 뒤섞였다. 운동회는 체육 행사를 넘어 학교와 동네가 하나 되는 날이었다.





교복과 도시락, 학생이라는 이름의 하루

남학생은 단정한 상의와 바지, 여학생은 치마와 블라우스. 학교마다 디자인은 달랐지만,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옷이었다.

두발 규정도 엄격했다. 남학생은 귀와 목을 덮지 않는 짧은 머리, 여학생은 단발이나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기본이었다. 교련복은 남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다. 군복을 닮은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모습은 지금 세대에게는 낯선 풍경일지 모른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식이 보편화되기 전 점심시간, 교실에는 김치 냄새, 밥 냄새가 가득했다. 친구들과끼리 반찬을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했다.

나만의 개성, 가방 속 소지품과 졸업 앨범

학생들 가방 속은 또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책과 공책, 필통은 물론, 친구에게 받은 쪽지나 작은 메모지도 가방을 채웠다. 누군가의 가방에는 쉬는 시간에 몰래 보려고 넣어둔 만화책이 있었고, 친구들과 나눠 먹을 간식을 숨겨 두기도 했다.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면 운동화 주머니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 도시락 가방을 따로 들고 오는 학생도 많았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의 가방 속을 들여다보며 “오늘 반찬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풍경도 자연스러웠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졸업 앨범 촬영이 큰일이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교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 사진을 찍던 날, 친구들은 평소와 같은 듯 달라 보였다. 졸업 앨범을 펼치면 사진 속에는 교복 위에 재킷을 걸치거나 넥타이를 매고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다.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찍은 단체 사진에서는 그 시절 교실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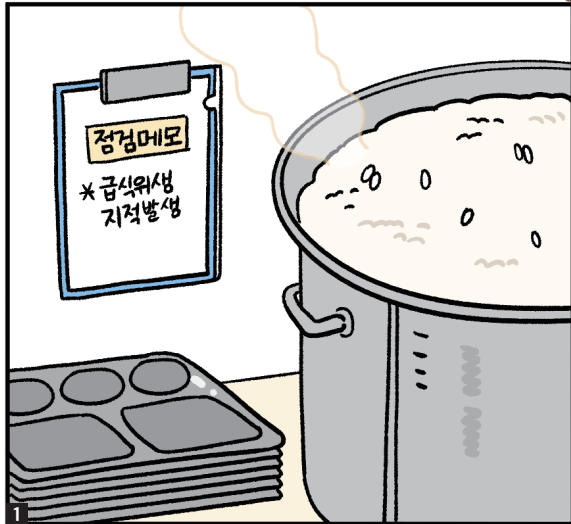


독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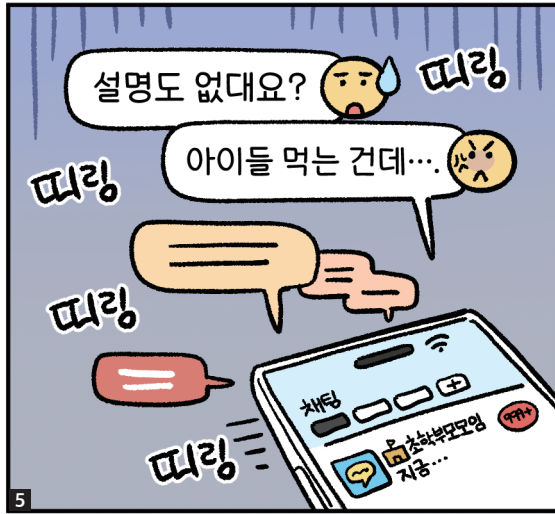
학창 시절의 추억을 보내주세요

아침 조회, 운동회, 가방 속 소지품, 졸업 앨범, 교복, 도시락까지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선정된 사연은 다음 호 ‘응답하라 경기’에 소개되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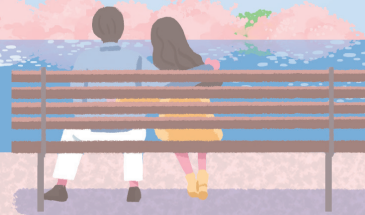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찬란한 계절을 더욱 빛내줄 봄날의 문화정보



군포 축제

화려한 봄의 색에 빠지다
군포철쭉축제

20여 년 전 송전탑이 세워진 산본 신도시의 삭막한 언덕에 시민의 손으로 조성한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한 군포시 대표 축제다. 매년 봄 만개한 22만여 그루의 철쭉꽃을 감상할 수 있는, 방문객과 축제 참여자에게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는 도심 축제다.



기간 2026. 4. 18.~4. 26.

장소 군포시 산본동 일대, 철쭉동산, 철쭉공원, 차없는거리

요금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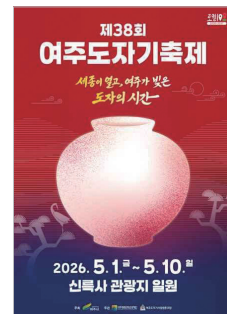
문의 031-390-3558

홈페이지 gunpofestival.or.kr

여주 축제

세종이 열고, 여주가 빛은 도자의 시간
여주도자기축제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세종이 열고, 여주가 빛은 도자의 시간'을 주제로,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역사문화도시 여주의 상징성과 천년 도자 전통을 결합해 선보인다. 여주 대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기간 2026. 5. 1.~5. 10.

장소 신덕사 관광지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31-881-9692

홈페이지 yjfestival.or.kr

연천 축제

30만 년 전 과거로 떠나는 여행
연천구석기축제

연천전곡리유적은 30만 년 전 우리나라에 매우 독특한 구석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인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 유적이다. 매년 한 차례 전 세계 선사 문화를 선보이는 원시 체험의 장이 연천 전곡리에서 열린다.



기간 2026. 5. 2.~5. 5.

장소 연천전곡리유적

요금 성인 7,000원, 어린이 3,000원
(각각 지역상품권 5,000원, 3,000원 환급)

문의 1588-7890

홈페이지 yeoncheon.go.kr/festival

화성 축제

다양한 해상 레저가 하나 가득
화성벚놀이축제

화성시 대표 축제 '화성벚놀이축제'는 요트 또는 보트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기는 모든 체험이 가능하다. 화성벚놀이축제를 대표하는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기간 2026. 5. 22.~5. 25.

장소 화성시 전곡항 일원

요금 무료(일부 프로그램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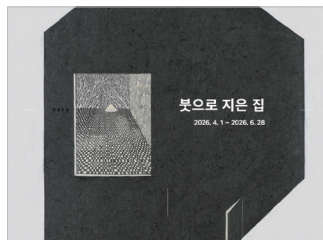
문의 070-7733-0390

홈페이지 hs-boatingfestival.com

양주 전시

작가가 짓고 관람객이 머물고 싶은 '집'
빛으로 지은 집

빛의 행위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확장해 일곱 작가가 각자의 삶과 감각으로 구축한 '집'의 의미를 되짚는다. 작가들은 집이



이르는 풍경, 사적인 공간, 집의 구조, 그리고 집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기간 2026. 4. 1.~6. 28.

장소 안상철미술관

요금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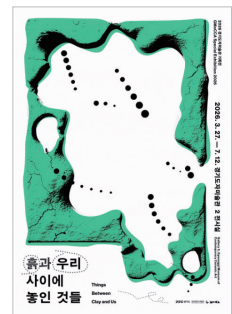
문의 031-874-0734

홈페이지 ahsangchul.co.kr

이천 전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묻다
흙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들

'흙'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를 통해 인간과 환경, 감각과 시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동시대 도자 예술 전시다. 전시는 흙의 물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예술이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객에게 다가간다.



기간 2026. 3. 27.~7. 12.

장소 경기도자미술관

요금 무료

문의 031-645-0730

홈페이지 gmocca.org

양평 전시

예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역할 탐구
무엇이 보이는가

전국 16개 미술대학의 유망 작가 59인과 함께 '인지'라는 관점에서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상한 도구인 예술이 만들어내는 예측 오류와 우리 마음이 내부 모델을 갱신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의 인지를 재조정한다.



기간 2026. 3. 14.~5. 10.
장소 양평군립미술관
요금 무료
문의 031-775-8515
홈페이지 ymuseum.org

성남 전시

작은 눈으로 바라본 큰 세상
세상의 눈

2023년,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미 대륙의 12개국 출판사가 모여 '세상의 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적인 그림책을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기간 2026. 3. 25.~7. 5.
장소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요금 6,000원
문의 031-5170-3700
홈페이지 hmoka.org

광명 전시

참여로 완성되는 업사이클 전시
업사이클 인터랙티브

국내에서 최초로 자원 재활용을 의미하는 '업사이클'과 기계적 움직임을 예술로 표현하는 '키네틱아트(kinetic art)'를 접목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시에는 국내 유명 키네틱아트와 미디어아트 작가 6인(팀)이 참여해 총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간 2026. 2. 13.~10. 18.
장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요금 무료
문의 02-2680-2086
홈페이지 upcycle.gm.go.kr

성남 전시

모래와 흙이 만들어낸 두 세계
모래와 흙

하나의 대상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전체의 이치를 읽어내는가 하면, 하나의 이치에 다가가기 위해 다층적 관점과 형식을 넘나들며 탐구와 실험을 지속한다. 전시는 모래와 흙, 하나에서 전체로 확장되는 인식과 전체에서 하나로 수렴하는 두 작가의 다른 관점을 경험하게 한다.



기간 2026. 3. 19.~5. 15.
장소 앤갤러리
요금 무료
문의 031-602-2388
홈페이지 ngalleryart.com

여주 전시

세 화가의 이야기로 만나는 한국의 깊이 근현대 미술 거장전 <한국, 세 개의 울림>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세 거장, 이중섭·박수근·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이중섭의 '흰 소', 박수근의 '농약', 그리고 김환기의 초기작까지 한국 미학의 정수를 이루는 작품이 한자리에서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기간 2026. 4. 10.~5. 31.
장소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요금 5,000원
문의 010-4088-4565
홈페이지 artcentum.co.kr

남양주 전시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전시 오늘도, 준비중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한강뮤지엄 기획전 <오늘도, 준비중입니다.>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 과정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전시다.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의 태도를 작품으로 풀어내며, '준비 중'인 우리의 모습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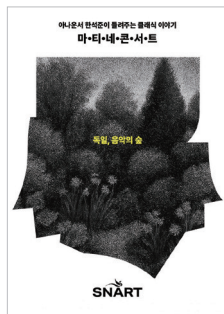


기간 2026. 3. 25.~9. 13.
장소 한강뮤지엄
요금 무료
문의 031-577-2977
홈페이지 hangangmuseum.com

성남 공연

클래식 음악을 향유하는 행복 마리네 콘서트-독일, 음악의 숲

2026 마리네 콘서트는 '독일, 음악의 숲'을 주제로 서양 고전 음악의 요람인 독일 음악의 유산을 탐구한다. 4년간 진행자로 활약한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지휘자 홍석원, 최수열과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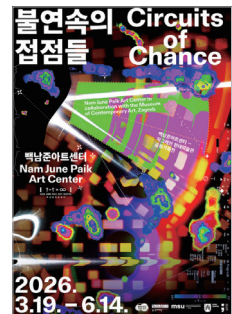


기간 2026년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요금 전석 2만 5,000원
문의 031-783-8000
홈페이지 snart.or.kr

용인 전시

다른 시작, 같은 울림 불연속의 점점들

백남준의 예술과 불연속적으로 점점을 만들고 공명하는 크로아티아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만 예기치 않은 점점과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피드백의 장을 형성하는 미디어 아트다.



기간 2026. 3. 19.~6. 14.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요금 무료
문의 031-201-8500
홈페이지 njp.ggcf.kr

독자 숨씨 마당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식지 제294호에 대한 소감과 독자 참여 이벤트 '골목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사연 속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따뜻한 의견과 함께, 삶의 결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눈 내리던 날 골목

눈이 평평 내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알록달록한 뽑기 기계가 늘어난 풍경이 문방구 앞에 머물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효주(0**2)



추억을 떠올리는 풍경

헤이리에서 마주한 풍경이 어린 시절 동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겹던 장면들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우리 세대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인숙(0**4)

야생화의 단상

지친 퇴근길, 동네 골목 한편에서 이름 모를 야생화를 만났습니다. 그 꽃처럼 제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빛내고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춘임(7**8)



아빠가 된 소년

1992년, 추억의 오락 게임을 즐기던 시절 사진입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 또 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인주(2**8)



나의 걸음마 시절

추운 겨울이 지나고 걸음마를 배우던 이맘때, 엄마와 따뜻한 골목에서 햇살을 쬐며 보낸 시간입니다. 기억은 없지만, 사진을 보며 그때를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안도현(7**9)

기억은 없지만 추억이 생기다

제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곳이 제가 살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강지호(9**8)



기다림 끝에 더 따뜻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기다려지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호는 디자인이 한층 세련되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소방관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삽화와 글이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나연(0**9)

가슴에 남은 목소리

‘당신을 기억합니다’ 코너 속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후손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니,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최유경(8**2)

더 쉽게 다가온 의회 이야기

확실히 달라졌네요. 개인적으로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웹소설과 웹툰 코너는 의회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 참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승민(6**4)



독자 이벤트

학창 시절 추억을 보내주세요

학창 시절, 당신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책과 공책, 필통 사이에 숨겨 둔 쪽지, 친구와 나눠 먹던 간식, 몰래 넣어 둔 만화책처럼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교복과 머리 스타일, 도시락에 담긴 기억도 좋습니다. 짧은 사연과 함께 당신의 추억을 나눠주세요. 사진과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보내주신 이야기 중 일부는 ‘응답하라 경기’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접수 마감: 5월 18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026년 경기가족친화기업 0.5 & 0.75잡 지원사업

주요 내용 개인 사유(출산, 육아, 가족 돌봄, 자기 계발 등)로 근무시간을 주 30시간 또는 주 20시간 등으로 단축하는 맞춤형 단축근무제도 정착 지원

모집 내용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증) 노동자: 경기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단축근로 업무대행자
신청 기간	2026. 3. 4.(수)~11. 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인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 (기업 지원) zrr.kr/eh3kGp - (노동자 지원) zrr.kr/ClGish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담당자: 031-270-9997)
상세 요건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근태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신청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 2025년 근태 시스템 선정 기업 제외	최대 1,000만 원 한정
전문가 컨설팅	근태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신청 기업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 노무 컨설팅
추가고용 장려금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주 4시간 이상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추가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0만 원 (최대 6개월)

- 노동자

지원금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자)	주 20~38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 ※ 2025년 참여 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대행자)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동료 근로자 ※ 2025년 참여 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월 최대 20만 원

2026년 경기도 중장년 인턴십

주요 내용 도내 기업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에 중장년 채용 시 최대 360만 원 인건비 지원

모집 내용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40세 이상~65세 미만(1962~1986년생) 경기도민 • 참여 기업: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신청 기간	[1차 모집] • 참여자: 2026. 2. 23.(월)~4. 30.(목) 18:00 • 참여 기업: 2026. 2. 23.(월)~3. 31.(화) 18:00 *지원 마감 [2차 모집] *예정 • 참여자: 2026. 6. 1.(월)~6. 30.(화) 18:00 • 참여 기업: 2026. 6. 1.(월)~7. 31.(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선정 인원	40세 이상~65세 미만의 경기도민 730명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 (담당자: 031-270-9982)

세부 내용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20만 원 최대 3개월 기업에 지원
• 지원 인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금 지급 조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최소 2개월 이상 근무 시 월 단위로 지급
※ 본 사업 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참여자 집합교육 1회 수강 및 수료증 제출, 멘토링 월 1회 이상 실시 및 일지 작성 필수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 지원'

주요 내용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job.gg.go.kr

주요 내용	
취업 진단	직업 선호도, 취준 BTI, 취업 준비도, 취업 가능성, NCS 직업 역량 진단까지
자소서 첨삭	전문 컨설턴트들의 차별화된 첨삭 지도, 심층적 컨설팅
AI 역량 검사	잡아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AI 역량 검사
동영상 강의	원활한 실무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 역량 학습

경기도를 바꾸는 첫걸음

경기도의회의 최신 소식을 담은
의정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 보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구독 신청
1599-3086

(문자 전용)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문의 031-8008-7123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홍보팀)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총 6회 113일,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4회 52일)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제388회 임시회, 10일간)
업무보고, 대표의원 연설,
대집행부 질문(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제389회 임시회, 8일간)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제390회 정례회, 16일간)
결산 승인, 추경예산안 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제391회 임시회, 16일간)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대표의원 연설 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제392회 임시회, 18일간)
대집행부 질문(3/4), 추경예산안,
행감 계획 승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제393회 정례회, 45일간)
대집행부 질문(4/4), 행감, 본예산안 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제393회 정례회, 계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본회의 ■ 상임위 ■ 예결위 ■ 행정사무감사

※ 예비 일수: 27일(정례회 19일, 임시회 8일) / 비회기: 1·3·5·8·10월

※ 위원회(소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포함) 활동은 회기, 비회기 중 모두 가능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2026년 경찰청 업무보고에 담긴 이 문장은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사명을 보여 줍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낸
모든 경찰관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듭니다.